

박영수, 두번째 구속심사 “번번이 송구…있는 그대로 말하겠다”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19억 수수 혐의…이르면 오늘밤 구속 여부 결정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돋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50억 클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가 3일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청탁금지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6월30일 박 전 특검의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34일 만이다.

오전 10시 13분께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박 전 특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굳은 표정으로 “번번이 송구스럽다.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은 거액의 돈이 사업 관련 청탁의 대가인가’, ‘망치로 휴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돋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전화를 부순 이유가 무엇인가’ 등 질문에는 손을 내젓거나 입을 열지 않았다.

박 전 특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의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과 부동산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고,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2015년 3~4월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받은 뒤 50억원을 약정받았다고 본다.

박 전 특검은 이러한 혐의로 6월 첫 번째 영장심사를 받았으나 법원은 박 전 특검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대대적인 보강수사를 통해 그 특검 재직 기간인 2019~2021년 팔 박모씨를 통해 화천대유에서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원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 송진영 기자

김동연 “양평道 변경안, 기재부 협의도 안 거쳐…원안이 해법”

“2012년 이후 예타 노선 1/3 이상 변경 첫 사례…용역업체 주도도 비상식적”



질문에 답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변경안(강상면 종점)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원안(양서면 종점) 추진을 재차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가 지난달 23일 공개한 사업 관련 자료를 토대로 국토부 설

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지사는 우선 예비타당성 조사 후 시·종점이 변경된 고속도로 사업이 14건이나 된다는 국토부 해명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 노선이 원안과 55% 바뀐 데 대해 이전 14건의 변경 사례를 언급한 바 있다.

그는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14건 중 2 건은 아예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고 12건 중 11건은 2012년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신설 이전의 사업”이라며 “지침은 ‘예비타당성 조사 후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될 경우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2012년 이후 1건의 사례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사업으로 종점이 변경됐는데 노선은 5%만 바뀌었다.

김 지사는 “지침 이후 노선의 1/3 이상이 변경된 최초 사례가 서울-양평 고속 도로이고 기재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최적안’으로 확정됐다”며 “국토부가 주장하는 노선변경 이유와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지나치게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또 용역업체가 노선변경을 주도했다는 국토부 해명도 비상식적이라

고 했다.

그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민간회사가 ‘착수보고서’에서 변경안을 제안했다는 것은 오랜 공직을 경험한 제 식견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용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착수보고서에서 국토부와 기재부가 2년 넘게 검토해 확정한 ‘예타안’에 대해 55%나 변경되는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국토부가 노선 결정 과정에서 경기도를 배제한 점에 대해서도 김 지사는 문제 삼았다. 그는 “2022년 7월 1차 관계기관 협의에 경기도가 필수 협의 대상이었지만 배제됐다”며 “당시 협의에 참여한 하남시도 ‘경기도와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토부에 제안했지만 묵살됐다”고 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들이 송파-하남선 도시철도, 국지도 88호선, 지방도 324호선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도시 철도나 도로를 연결·통과하거나 간접해 경기도는 협의 대상에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김 지사 설명이다.

/ 박민욱 기자

주호민 아들 학대 의혹 교사 “아휴 싫어”

교사측 “부정적 편집”



“(수업 시간)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 측은 공소장에 적힌 내용이 A씨 측에게 불리하게 짜깁기됐다는 입장이다.

A씨 변호인은 “당시 2시간 반 동안 벌어진 여러 다른 상황에서 가장 부정적인 말들을 뽑아서 주린 것으로 교사의 훈장말이나 앞뒤 밟언, 주씨 아들의 답변 등 맥락을 제외해 마치 추궁하는 것처럼 편집됐다”며 “특히 훈육이냐 학대냐를 다투는 사안에서 훈육을 입

해당 교사 ‘발언 내용’ 공소장 공개

검찰, ‘정서적 학대’ 판단

등의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특수교사 A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3일께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 아들(9)에게 “도대체 맨날 뭔 생각을 하는 거야, 너 왜 이러고 있는 줄 알아?”라고 했다.

이어 “너 친구들한테 왜 못가? 너 친구한테 못 어울려. 못가. 못 간다고. 베 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러한 발언이 장애인인 주씨 아들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하고 A씨를 기소했다.

A씨가 주씨 아들에게 한 문제의 발언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씨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무리하게 신고했다는 논란이 최근 불거진 직후 주씨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증하는 부분들은 아예 제외한 셈”이라 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장에 나타난 것처럼 A씨가 계속 추궁하듯 말한 게 아니고 잘못을 알려주고 훈육하기 위해 대화를 하는 과정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주씨 측의 경찰 신고 이후 직위해제 된 A씨를 지난 1일 복직시켰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 큰 상처가, 다른 특수 아동, 학부모분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복직 조치 이유를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기관 차원의 대응을 시작한다”며 “신고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한 직위 해제를 하지 않고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소송비,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 이문호 기자

aT 가 함께 합니다

지속 가능한 우리 농어업!
잘사는 우리 농어업인!

'LH카르텔 폭로' 경실련 사무총장 "LH, 개발사업 손떼야"

"사업 입찰시 주관적 정성평가 없애고 가격경쟁 우선해야"

공기업이 장사하도록하는 구조가 악순환 원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질적 병폐를 폭로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하주차장 철근을 빼뜨린 LH 아파트 15개 단지의 명단을 공개한 지난달 31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부실 공사가 LH 전관 특혜와 연관됐다는 이른바 'LH 카르텔' 의혹에 한발 먼저 불을 붙였다.

정부도 이를 납득하고 LH 아파트를 둘러싼 민관 유착을 근절하겠다고 나섰다.

경실련의 김성달 사무총장은 '반카르텔 본부' 설치 등 LH가 내놓은 쇄신 대책이 충분치 않다고 평가했다.

김 사무총장은 "LH는 개발사업에서 손을 떼고 기존 공공주택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더욱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LH 영업이익이 매년 5조원"이라며 "건설물량을 늘리고 팔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들어 이익을 내고 성과금을 채우고 정부에 또 다른 토건 사업을 정책건의하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업이 장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구조를 바꿔서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이번 전관 특혜 논란이 LH를 해체하는 수준의 쇄신안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LH 전관 특혜가 발생하는 문제의 핵심은 수의계약과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이 2015~2020년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 건을 살펴본 결과 이중 55.4%에 해당하는 297건이 LH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열린 경단 봉고사과 관련 LH 전관특혜 실태 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출신 전관이 재취업한 업체로 드러났다. 계약 금액으로는 69.4%를 차지한다. LH 전관을 영입한 업체에 '몰아주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가격뿐 아니라 공사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계약 업체를 선정하는 종심제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심사위원들의 정성 평가에 의존해 전관특혜를 위한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시각이다.

김 사무총장은 "전체 평가점수에서 가격 평가는 20%, 기술능력 평가는 이름의 정성평가가 80%를 차지하다 보니 가격 경쟁력이 아무리 높아도 결국 심사위원의 주관적 평가가 당락을 결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격경쟁이 우선하는 입찰 제도를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격경쟁이 저가 수주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이번에 문제가 된 현장들은 충분한 공사를 줬는데도 설계·시공·감리가 모두 무너졌다"며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제대로 감리하는 시스템만 유지된다면 가격 경쟁을 통한 입찰은 공공사업 효율화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실시공과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것을 막기 위해 원정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직접시공제, 설계도면·공사비 내역서 등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사무총장은 "지난해 감사원은 LH 계약을 수주한 상당수 업체가 전관 업체라는 실태를 밝히는 정도에 그쳤다"며 "이번 LH 전관이 불공정한 업체 선정, 불성실한 감리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드러내 명확한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송진영 기자



감사원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전국

확대해야" 환경부에 통보

감사원은 현재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전국에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 장관에게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은 환경단체 녹색연합의 청구로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유예' 관련 공의감사 결과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감사원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보증금 제도 시행을 유예하고 일부 지역에 우선 시행했다면 여건이 개선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에 자원재활용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전국적 시행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회는 2020년 5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도입에 관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같은 해 6월 9일 개정안이 공포됐다. 개정된 법을 보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공포 2년 뒤인 작년 6월 10일부터 시행돼야 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시행을 21일 앞둔 작년 5월 20일, 제도 도입을 6개월 뒤인 12월로 미루면서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환경부가 당시 제도를 현장에서 시행하는 데 필요한 대상 사업자, 사업자 준수사항, 보증금 관련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고시를 제때 마련하지 않아 사업자들이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판단했다. 보증금 제도를 실행하려면 커피 판매점 등은 제품 가격에 보증금을 반영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데 필요한 여윳돈을 준비해야 했다.

컵에 보증금 안내 라벨을 붙이고, 돌려받은 컵을 보관할 장소를 마련하고, 수집·운반사업자와 위탁 처리계약도 해야 했지만 기준이 되는 고시가 없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환경부가 뒤늦게 정한 고시를 보면 제주·세종 외 나머지 지역은 '고시 시행일 이후 3년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제주·세종 지역의 시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날에 적용한다'고 돼 있다.

감사원은 이 고시 내용을 지목하며 "언제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다만 코로나19 여파가 있던 작년 5월에 중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고려된 점은 일부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 원규진 기자

금융의 모든 순간

일상의 금융에서 일생의 금융으로

원하는 삶을 위해
견뎌야 하는 오늘의 무개도
농협금융과 함께 나누면 더 가벼워집니다

당신의 평범한 일상이 모여서
특별한 일생이 될 수 있도록

금융의 모든 순간
함께하는 100년 농협



NH농협금융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NH농협금융이 응원합니다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농업리츠운용 NH벤처투자 NH농협카드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 활동 공식화

BBQ 손배소송 대리인 선임…검찰 '재판거래' 의혹' 등 수사 중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돼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권순일 (64·사법연수원 14기) 전 대법관이 본격적으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지난달 21일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회장 등이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낸 7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BBQ 측 대리인으로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변호사 등록이 승인된 권 전 대법관이 실제 사건을 수임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2년이 지난 작년 9월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변협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두 차례 '신청을 자진 철회하라'고 공문을 보냈다.

이후로도 권 전 대법관이 등록 신청을 철회하지 않자 변협은 판·검사와 교수 등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등록심사위원회에서 그의 등록을 승인했다.

권 전 대법관은 서울 서초구의 한 건물에 변호사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



졌다. 퇴임 후 개인 사무실로 쓰던 곳이라고 한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일하며 월 1천500만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이 50억 원을 건네기로 했다는 '약속 클럽'에도 포함돼 있다.

일각에선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을 선고해 주는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게서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보트였고, 무죄 취지 의견 편에 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다만 권 전 대법관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50억 클럽의 실제를 규명하는 검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과장도 전 의원의 대장동 사업 관여 의혹을 규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가운데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보강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2021년 11월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으나 이후 수사가 더 진전되지 않았다.

검찰은 박 전 특검과 곽 전 의원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한 이후 나머지 50억 클럽 관련 의혹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다음 수사 대상은 권 전 대법관이 되리라는 예상이 많다.

/ 임성훈 기자

권익위 "열차 좌석청소 주기 단축해야"

국토부·철도공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철도 차량 청소 등의 오염도 검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청결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철도차량 위생 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

철도 차량의 위생환경 등을 관리하는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차량 청소작업 기준'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위생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KTX 등 고속차량 내부는 상시·일일 반복 청소를 진행하고, 좌석과 카페에는 30~35일 주기로 진공 청소를 하고 있다. 권익위는 그런데 국민들의 민원이 빈번하게 접수되는 만큼 '투명하고 명확한 오염도 검사 기준 마련'과 '철도 차량의 위생 관리 강화'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 신현민 기자

“지지율 때문에 이러겠습니까”…尹이 밝힌 ‘호남 지원론’ 배경

전북 기업인들과 만찬서 “호남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 뜻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첫날 전북 지역 기업인들과 만찬에서 호남 발전에 대한 전폭적 지원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2일 LS그룹의 새만금 이차 전지 투자 협약식에 참석한 데 이어 새만금 투자 기업 및 전북 지역 기업 관계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 기업인이 ‘전북 지역 지지율이 낮은데도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자 “제가 지지율 갖고 그러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지지율 좀 높여보려고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며 “지지율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앞선 투자 협약식 인사말에서도 “전북과 호남이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며 “호남의 미래, 대한민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전북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린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앞서 구자는 LS그룹 회장(가운데) 등으로부터 전구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국의 미래를 위해 전북도민과 함께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우회적으로 표현해온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뜻)를 모처럼 다시 꺼낸 것으로 해석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새만금에는 30개 기업이 6조6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결정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이뤄진 1조 원의 6배가 넘는 규모라고 대통령실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북 완주에 수소 산업, 익산에 미래 식품 특화 단

지를 각각 지정했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되도록 했다.

도민들의 숙원이었던 전북특별자치도 출범도 목전에 두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앞서 김관영 전북지사가 요청한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관련 예산도 전액 반영이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기획재정부 심의 등을 거치며 일정 액수를 산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윤 대통령이 특별히 “한 푼도 깎지 말고 다 해주도록 하라”고 확실한 지원을 당부했다는 것이다.

전날 윤 대통령 일정에 배석했던 김지사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에게 점퍼리 행사장에 꼭 와달라고 요청했는데, 김건희 여사와 같이 방문해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 송진영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 도봉구청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오언석 도봉구청장에게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한총리, ‘냉방 공유’ 도봉구청 방문

“창의적 냉방 복지 필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서울 도봉구청과 창동역 현대화사업 공사 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처 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먼저 서울 도봉구청이 지난달 10일부터 운영 중인 ‘셰어컨 프로젝트’ 현장을 둘러봤다.

셰어컨 프로젝트는 ‘나누다’(share)와 ‘어어컨’의 합성어로, 구청 공간을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프로그램이다. 다음 달 30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도봉구는 구청 1~2층에 학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독서방, 아이들 놀이방, 장기·바둑방, 안마의자방 등 11개 피서 공간 마련했다.

그동안 소규모 휴게실 운영,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 기존 지자체 냉방복지 정책과 달리 셰어컨 프로젝트는 대도시 주거 밀집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모든 계층과 연령을 대상으로 한 공공 냉방 공유 프로그램이라고 총리실은 설명했다.

한 총리는 도봉구청에서 구민들과 냉방 복지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최근 수해를 입은 경북 예천의 특산물인 사과즙을 나눠 마시기도 했다. 한 총리는 “도봉구청은 민원 업무를 보려 오시던 주민들 사이에 자연스레 입소문이 나서 저절로 동네 사랑방이 됐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어 창동역 현대화 사업 공사 현장을 찾아 애와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온열질환 예방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휴게실 냉방 상태 등을 살펴본 한 총리는 “지자체와 공사 책임자가 물, 바람, 휴식 3대 기초 수칙을 제대로 지켜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 백경준 기자

6·15남측위 “尹정부 굴욕적 외교행보…한반도에 다시 위기”



지난 4월 기자회견 개최한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진보 시민단체는 3일 “남북간 평화와 화해협력, 통일을 위한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반도에는 팽팽한 군사적 대결과 위기가 재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측위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광복 78년 8·15범국민대회 개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종전과 화해협력을 가짜 평화라며 ‘힘에 의한 평화’를 주창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마치 일본과의 군사협력, 한미일 군사협력만이 우리의 안보를 지켜줄 것처럼 주권을 훼손하는 굴욕적인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 측은 광복 78주년을 맞아 오는 12일 수만 명이 참여하는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 윤종민 기자

박광온도 대한노인회 찾아 사과…“막말에 당황스럽고 안타까워”



3일 용산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김호일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노인평화 발언 사과를 위해 방문한 박광온 원내대표를 만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3일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평화’ 논란 발언과 관련, 대한노인회를 찾아 거듭 당 차원의 사과 입장을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에서 김호일 회장 등과 만나 “민주당에서 가끔 막말로 뜻하지 않게 상처를 주는 발언이 나와서 저희로서도 당

/ 신현수 기자

윤재옥 “전국 6만8천곳 경로당에 10만원씩 냉방비 특별지원”

국민의힘과 정부는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전국 6만8천여곳의 경로당에 냉방비 10만원씩을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3일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폭염 대처 상황을 살피고 어르신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올여름이 유난히 덥지 않나”라며 “전기, 냉방을 맘대로 쓰고 필요한 폭염 대책에 쓰시라고 6만8천여개 전국 경로당에 10만원씩 지원을 특별히 하기로 정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 “아침에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의견 청취했다”며 “특별한 디위이고, 사실 폭염도 재난으로 분류하고 있다.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현장 점검을 위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원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을 비롯해 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문현 종로구청장 등이 동행했고, 지역 주민과 대한노인회, 종로 노인회 관계자 등이 맞이했다.

이날 경로당 방문에는 강대식·김병민 최고위원, 종로구 지역구인 최재형 의원

/ 신준수 기자

SAMSUNG

구형 TV 중고로 팔려야 새 TV로 바꾸자는
경제관념 확실한 우리 아내

상받을 만해

삼성 TV로 바꿔보상

TV를 바꾸려면 바로, 지금.
대국민 TV 보상 페스티벌 「삼성 TV로 바꿔보상」

최대 100만 포인트 보상 혜택부터 Neo QLED 189cm 경품 당첨의 기회까지!
지금 전국 삼성 매장과 삼성닷컴에서 만나보세요.
2023.06.01-07.31

Neo QLED 8K | Neo QLED | QLED | OLED

| 17년 연속 세계판매 1위 |
+ 2006-2022 세계 TV 판매 점유율 1위. Omdia 기준

러, 루마니아 코앞 항만 또 공습…젤렌스키 “세계가 대응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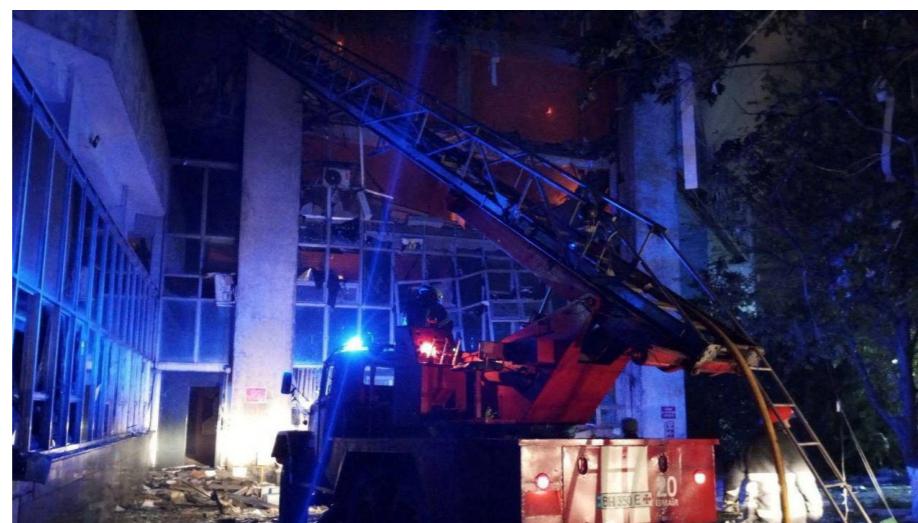
우크라 다뉴브강 항구도시 이즈마일에 드론 공격…키이우도 목표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루마니아와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의 다뉴브강 항구를 또다시 공습했다고 2일(현지시간) 로이터,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이날 남부 오데사 지역 이즈마일 항구의 곡물 저장고가 러시아에 의해 손상됐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이즈마일은 다뉴브강을 경계로 루마니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남단의 항구 도시로, 다뉴브강을 통해 러시아의 흑해 봉쇄를 우회할 수 있어 우크라이나의 곡물 대체 수송로로 이용되는 지역이다.

우크라이나 남부 작전사령부는 폴란드에서 러시아의 공습으로 이즈마일 항만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곡물 저장고가 부서졌다는 “적의 목표는 분명히 항만 시



러시아가 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주의 이즈마일 항만 시설을 공습했다. 이즈마일은 다뉴브강을 경계로 루마니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이다.

설과 산업 기반 시설이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간밤 오데사와 수도 키이우를 향해 발사된 러시아의 사례드 자폭 드론 23기를 요격했다고 밝혔다.

세르히 품코 키이우시 군정 책임자는

키이우를 목표로 한 드론 10기를 모두 요격했으나, 드론 잔해가 추락하면서 일부 비거리 건물이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지난달 17일 러시아는 전쟁 중에도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을 보장한 흑해곡물

협정을 파기한 후 흑해 항로의 안전보장을 철회하고 오데사 등 우크라이나 남부 항만에 대해 연일 공습을 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뉴브강만 건너면 루마니아인 우크라이나 항만까지 공격하면서 나토와의 충돌 위험까지 커지고 있다.

러시아는 지난 달 24일에도 루마니아와 국경을 맞댄 오데사주 레니 마을의 다뉴브강 항만을 공격한 바 있다. 레니 마을은 이날 공격받은 이즈마일과 약 40km 떨어진 지역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 테러리스트들이 또다시 항구와 곡물, 세계 식량 안보를 공격했다”며 “세계가 대응해야 한다. 민간 항구가 목표물이 되고 테러리스트들이 고의로 곡물 저장고까지 파괴하는 것은 모든 대륙의 모든 이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비난했다.

/ 흑순철 기자



오염수 문제로 대면한 일본 경제산업상과 후쿠시마 어민

일어민, 원전 장관에 “방류 전인데 수출 안돼…소문피해 대책을”

일본 아오모리현 지역 어민이 2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계획과 관련해 원전 담당 장관에게 “방류 시기를 늦추더라도 강력한 소문(풍평) 피해 대책을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오모리현 어업 협동조합연합회 니키 하루미 회장은 이날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과 만나 “매우 불안하게 느낀다. 방류 전인데도 수출이 안 되는 것 같은 인상을 받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니키 회장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방류 반대 입장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해 방류를 늦춰달라”고 말했다.

중국과 홍콩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지난달부터 세관 당국이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수입 규제를 개시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니키 회장에게 “중국, 홍콩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대응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오염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대응과 방류가 국제안전기준에 합치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내용도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올여름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방류에 반대하는 어업인들을 만나 이해를 구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방류를 시작하기 전에 이달 사카모토 마사노부 전국 어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 윤종민 기자

“인도, 中 비야디 세무조사…수입부품 관세 115억 미납”

“추가 세금·벌금 징수 가능성”…인도, 비야디 공장 설립 제안 거부

인도 당국이 중국 전기차 선두업체 비야디(BYD)가 수입 부품에 대한 관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텐센트기 등 중국 매체들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 국세정보국(DRI)은 비야디가 인도에서 조립·판매하는 자

동차 부품을 수입하면서 6천360만위안(약 115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DRI는 비야디에 최종 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비야디가 나온 뒤 DRI가 주산한 체납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

그러나 DRI의 조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추가 세금과 벌금이 부과될 수 있

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다.

DRI는 비야디에 최종 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비야디는 지난달 초 현지 업체와 합작해 10억 달러(약 1조3천억원)를 투자, 인도에 전기차와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하는 계획이다.

/ 채정수 기자

中, G20 환경장관 합의 실패에 “일부국가 지정학적 문제로 방해”

중국 책임론 거론되자 외교부 입장문 통해 강하게 반발

중국이 주요 20개국(G20) 환경장관 회의에서 탄소 배출량 감축 등을 합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론이 거론되자 “사실과 다르다”며 발끈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을 통해 “G20 환경장관 회의는 합의문과 의장 요약문을 작성하고 긍정적이고 균형 잡힌 결과를 도출했다”면서도 “그러나 일부 국가가 이유없이 지정학적 문제를 끌어들여 방해하면서 성명을 발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

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그러나 어느 나라가 어떤 내용으로 지정학적 문제를 거론했는지 등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반면 일부에서 제기되는 합의 실패의 책임론을 의식한 듯 탄소 배출 감소와 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기후변화 문제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입장문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대변인은 그러면서 “선진국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능력·책임·의무를 직시하

고 개도국에 기후자금과 기술이전을 제공하며 일방적인 조치·디커플링·무역 장벽 등 기후변화 협력을 방해하는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G20 환경장관들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인도에서 화석에너지 사용과 탄소 배출량 감축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의에 참석한 프랑스 환경장관은 AFP 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과의 논의가 까다로웠다”고 말했다.

/ 민도영 기자

美, 이번엔 몽골과 ‘항공 자유화’ 협정…中·리 압박 가속화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

미국과 몽골이 곧 양국 간 민간 항공기가 자유롭게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접경국인 중국 및 러시아와의 갈등 속에 활로를 모색하는 몽골과, 역시 중국을 압박하고자 하는 미국이 밀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의명의 미국 관리에 따르면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은 이날 미국을 방문하는 룹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와 조만간 민간 부문 ‘항공 자유화’(open skies) 협정에 서명할 계획이다. 몽골은 남쪽으로는 중국에, 북쪽으로는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는 내륙 국가다.

몽골은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 전략으로 한

국, 미국, 일본 등 우방국들을 가까이 해왔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이웃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에 크게 의존해 수밖에 없었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국책항공사인 몽골항공은 현재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여러 항로를 운영하지만 미국에는 취항하지 않고 있다.

로이터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미국으로 직항하는 항공편을 띠울만한 승객 수요가 없을 수도 있다”면서도 “항공 자유화 협정은 국가간 화물 항공편에 더 나은 선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과 어용에르덴 총리는 이번 회담을 통해 영어 교육 제공을 비롯한 문화 교류 활성화 방안도 논의 예정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몽골에는 전기차 및 배터리 공정에 필수적인 희토류 광물과 구리가 상당량 매장돼 있으며, 몽골은 현재 전기차 분야에서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와 협력하고 있다.

이 관리는 “몽골은 30년 이상 민주주의를 유지해온 우방국”이라며 “이번 만남에서 양국의 경제·상업적 관계, 우주 분야 협력, 기후변화 논의, 중국·러시아 등 지역 및 글로벌 이슈를 폭넓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Samsung
Financial Networks

언니나는 말 들었어요
엄만데.



정릉동에 사는 최명진님은 매일 신선한 과일과 채소로 아침을 챙깁니다.

당신의 건강자산, 오늘부터 시작

Let's 건강자산

삼성생명

오늘,
시작하라

은퇴 후 걱정이 없도록
미래를 생각, 든든하게 대비한다.
좋아하는 음식으로 틈틈한 건강을 유지한다.
삼성생명 건강자산을 시작한다.

LS그룹, 새만금에 1조8천400억 투자…이차전지 소재 공장 건립

전구체 생산공장 연내 착공…신규 일자리 1천450여개 창출

LS그룹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1조8천400억대의 대규모 투자를 한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군산시·한국농어촌공사는 2일 LS그룹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1조8천402억원 규모의 '이차전지 소재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LS그룹은 연내 새만금 산단 5공구 33만8천928㎡에 공장을 착공하고 직원 1천450여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이다. 투자는 2028년까지 1차 전구체 생산, 2차 황산메탈 생산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1차 전구체 생산을 위한 투자사업인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의 '이차전지 양극 소재(전구

체)'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식도 진행됐다. 전구체란 이차전지 소재인 양극재의 원료가 되는 물질로 배터리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다.

LS-엘앤에프 배터리솔루션의 투자는 80%에 달하는 전구체 수입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이차전지 초강대국 K-배터리를 실현하고자 추진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로, 철도 등 물류 기반시설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새만금에 기업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새만금개발청장은 "이차전지 초강대국 실현을 위한 LS그룹의 투자를 환영하며 앞으로의 역할에 기대

가 크다"라며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이차전지 산업과 새만금 투자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약속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새만금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대규모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LS와 엘앤에프의 통 큰 투자를 환영하며 새만금을 대한민국 최고의 이차전지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은 "LS그룹 유치로 현 정부 들어 총 31개 기업, 약 6조6억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으며 직접 일자리 6천346개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 권준영 기자



부동산 PF 대출 횡령 사고 발생한 BNK경남은행

15년간 560억 횡령에도 경남은행은 왜 몰랐나…내부통제 부실

BNK경남은행 한 간부급 직원(부장)이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자금 수백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경남은행의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경남은행이 보고한 사고금액은 77억9천만원에 불과했다.

그다음 날인 21일부터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한 금감원은 이날 기준으로 불과 10여일 동안 이뤄진 점검에서 A씨의 횡령·유용금액이 2007년 12월부터 A씨가

돼서 A씨의 PF 대출 상환자금 횡령 혐의를 구체적으로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이 금감원에 A씨의 횡령 금액에 대해 처음으로 보고한 것은 지난달 20일이 돼서였다. 당시 경남은행이 보고한 사고금액은 77억9천만원에 불과했다.

그다음 날인 21일부터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한 금감원은 이날 기준으로 불과 10여일 동안 이뤄진 점검에서 A씨의 횡령·유용금액이 2007년 12월부터 A씨가

'버스 운전자 구인 전쟁' 고양시, 파격적인 채용 개선안 제시

교육 시간 단축·숙박시설 지원·경기 북부권 교육센터 건립

경기 고양시는 버스 업계의 고질적인 운전기사 구인 난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 시간 단축과 숙박시설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운전기사 부족으로 버스 운행률이 급감해 시민 불편이 커진 점을 고려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기도에 이러한 개선안을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

고양시에 등록된 시내·마을버스 1천66대가 131개 노선을 정상 운행하려면 운전기사 2천411명이 필요한데 현재 인력은 1천472명에 불과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상당수 운전기사가 수입이 더 많은 배달업계 등으로 이직했다가 복귀하지 않은데다



고양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신규 채용 조건마저 까다로워 버스 업계가 심각한 구인 난을 겪고 있다.

운전경력 1년 미만인 구직자가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면 고양시에서 왕복 5시간가량 소요되는 경기 화성시의 교통안전 체험교육센터에서 15일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는 이런 현실을 고려해 덕양구 고양동 군부대 이전 부지에 기숙형 교육센터를 건립하고 운전자 양성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유관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시는 운전자 양성 교육 기간을 시내버스는 10일, 마을 버스는 5일로 각각 줄이고 교육센터 숙박시설을 교육생들이 무료로 이용토록 하면 구인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석준 기자



영등포예술의전당 건립 예시안(평택평화예술의전당 조감도)

영등포구, 문래동에 '영등포예술의전당' 건립 첫발

옛 제2세종문화회관 후보 부지 타당성 조사·기본계획 용역

전당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곳에 공연장, 전시장, 창작공간 등을 조성해 문화도시로서 지속 가능한 인프리를 갖추는 것이 목표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 건립 기본방향과 세부 시설 구상 ▲ 사업 전략·관리 운

영계획 제시 ▲ 주민 친화 공간의 향후 활용 방안 ▲ 설문조사를 비롯한 수요 조사 분석 ▲ 국내외 유사 시설의 운영 성공·실패 사례 분석 ▲ 정책·경제·재무적 타당성 검토 ▲ 기타 복합문화시설과의 차별화 전략 제시 등이다.

용역 기간은 작수일로부터 6개월이고 용역 비용은 서울시 예산 지원을 통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1억2천만원이다.

용역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17~21일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 입찰서를 제출하고, 이후 기술제안서 등 제반 서류를 21일까지 구청 문화체육과로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용역 결과는 내년 3월께 나올 전망이다.

/ 임영선 기자

"도심 피서 즐기세요"…서울 숲·공원 곳곳 즐길거리 풍성

시내 6곳 무료 물놀이장…숲체험·야경 프로그램도

서울시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도심 숲과 공원에서 가족·친구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2일 소개했다. 서울 시내 6곳에서는 이달 말까지 무료 어린이 물놀이장이 운영된다.

훈련원공원(중구), 광진숲나루(광진), 월드컵공원(마포), 노량진축구장(동작), 방화근린공원(강서)에 문을 연 소규모 물놀이장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와 동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다.

수영장, 미끄럼틀, 에어바운스, 물총놀이 등 다양한 체험시설이 마련됐고 마술공연, 버블공연 등도 열린다. 비용은 무료이나 사전 신청을 받아 운영하는 곳이 있으니 해당 구에 문의해야 한다.

서울물재생체험관에는 1천52㎡ 규모의 대형 야외 물놀이터가 개장했다.

분수, 파이프 모양 놀이대 등 물놀이 시설과 대형 그

늘막, 탈의실, 아외사워기 등 부대 시설을 갖췄으며 최대 수심이 30㎝로 알아 유아와 어린이가 이용하기에 좋다.

힐링(치유)과 생태체험을 결합한 공원 탐방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북서울꿈의숲에서는 흙 체험 '고마운 흙과 만나요', 개미·잠자리·꿀벌 등을 관찰할 수 있는 '꿈의 숲 보물을 찾으라' 등 초등학생을 위한 숲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서울숲에서는 중학생 대상 '여름방학 공원캠프', 매미의 흔적을 찾아보는 '매미야 놀자', 곤충 날개를 3D현미경으로 관찰해보는 '신기한 생물교실' 등이 진행된다.

길동생태공원에서는 식물·동물 관찰과 체험을 통해 자연을 이해할 수 있는 '신나는 길동생태학교'가 초등학교 2~4학년을 대상으로 열린다.

서울식물원은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식물원 일대 곤충을 관찰하고 체험하는 '여름방학 어린이탐험대'를, 보라매공원은 '여름생태방학'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한다.

/ 백건우 기자

1만9천900원이면 경기 관광지 80곳 이용…투어패스 출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1만9천900원이면 경기 지역 관광지 80곳을 이용할 수 있는 '경기관광 투어 패스'를 2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투어패스를 구매하면 31개 시군에 있는 관광지, 체험시설, 카페 등 관광시설을 48시간 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중에는 광명동굴, 안성팜랜드, 파주 트리아트뮤지엄, 가평 빼띠프랑스,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화성 제부도서해랑케이블카, 양평 쉬파파크, 파주 임진각평화콘돌라, 포천아트밸리 등이 있다.

투어패스는 네이버 예약, 쿠팡, 티몬, 클룩 등 14개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다.

도는 앞으로도 이동거리를 고려한 '동서남북 권역형 상품권'(48시간 내 이용·1만6천900원), 관광지 밀집지 '지역 특화권'(24시간 내 이용·1만4천900원), 테마별 '관광정책 연계권'(48시간 내 이용·1만1천900원)을 차례로 출시할 예정이다.

/ 양희진 기자

시는 올해 3월 9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짓고 문래동에는 주민 친화형 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구는 문래동 부지에 주민과 문화·예술 인을 위한 구립 복합시설인 영등포예술의전당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곳에 공연장, 전시장, 창작공간 등을 조성해 문화도시로서 지속 가능한 인프리를 갖추는 것이 목표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 건립 기본방향과 세부 시설 구상 ▲ 사업 전략·관리 운

영계획 제시 ▲ 주민 친화 공간의 향후 활용 방안 ▲ 설문조사를 비롯한 수요 조사 분석 ▲ 국내외 유사 시설의 운영 성공·실패 사례 분석 ▲ 정책·경제·재무적 타당성 검토 ▲ 기타 복합문화시설과의 차별화 전략 제시 등이다.

용역 기간은 작수일로부터 6개월이고 용역 비용은 서울시 예산 지원을 통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1억2천만원이다.

용역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17~21일 나라장터를 통해 가격 입찰서를 제출하고, 이후 기술제안서 등 제반 서류를 21일까지 구청 문화체육과로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용역 결과는 내년 3월께 나올 전망이다.

/ 임영선 기자

오산시, 지역 전통주 판로·홍보 사업비로 1억원 확보



오산의 전통주

와 경기미를 이용한 '오산막걸리' 등 전통주를 제조해 판매하는 기업이다.

시는 최근 양조장 및 전통주 활성화 사업 관련 국·도비 5천700만원을 확보한 뒤 시비 2천400만원과 오산양조 자부담 2천600만원을 더해 총 1억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 사업비는 ▲ 전통주 판매장 설치 ▲ 노후 시설·장비 정비 및 교체 ▲ 전통주 홍보시스템 구축 ▲ 전통주 홍보 물품 제작 ▲ 지역 연계 관광 상품화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독산주, 오산막걸리 등 지역 전통주의 흥보와 판로가 확대돼 명실상부한 오산 특산품으로 자리매김할 뿐 아니라 쌀 소비량 증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남희정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세심하게 지원해 주니까,
안심하고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드디어, 맛집 등극!

챙하고 해뜰날이 오길 오길요!

#신한카드 #소상공인지원 #사장님김동 #MyShop파트너 #MyCredit #금융으로 일상을 이롭게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는 당신이 No.1입니다

신한카드가 세상의 모든
작은 No.1을 응원합니다

MyShop 파트너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한 마케팅 통합지원 플랫폼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 건강검진 예약/전용 소포를 제공

MyCredit 서비스

금융권 최초,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에게 신용평가로 소상공인 지원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준법감사 심의일 제20230623-Exo-002호 [2023.06.23~2024.06.22]

수원시, 쓰러진 택배기사 도운 아파트 주민들에게 표창



수원시, 쓰러진 택배기사 도운 아파트 주민들에게 표창

경기 수원시는 아파트에서 택배 배송을 하다가 쓰러진 고령의 택배기사에게 성금을 모아 전달한 수원 쌍용더플래티넘 오목천역 아파트 주민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고 1일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이 아파트를 방문해 이용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표장을 수여하고 택배기사 정순웅 씨 부부와 주민들을 만났다.

이 시장은 "안 좋은 사건, 사고가 많은데 주민들의 따뜻한 사랑이 국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셨다"며 "여러분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나라 전체에 따뜻한 일이 많이 생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택배기사 정 씨는 "이번 일을 겪으며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쌍용더플래티넘 오목천역 아파트 주민들은 평소에도 택배기사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큰 도움을 주셨다"고 했다.

한진택배 소속 택배기사 정 씨는 지난 달 17일 업무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심혈관계 질환 수술을 받았다.

아내 주 씨는 남편의 중증화일 입원 이후 이날 택배 배송이 예정됐던 쌍용더플래티넘 오목천역 아파트 주민들은 정 씨를 위해 모금을 시작해 248만원을 모아 전달했다.

이용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원래 100만원을 목표로 모금을 한 것인데, 이 정도로 많은 입주민이 참여할 줄은 몰랐다"며 "택배기사님도 우리 아파트 공동체의 일원이기에 상생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모금했다"고 말했다.

/ 신해영 기자

1Lead by 신한카드

‘취임 2년새 기소만 3건’…의령군수 잇단 재판에 지역사회 술렁

오태완 군수 2021년 보궐·2022년 재선 후 강제추행·선거법·무고죄 기소

경남 의령군수가 군정을 이끈 지 2년 만에 세 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되면서 지역 사회가 술렁인다. 전직 군수들의 구속과 중도 낙마 등을 경험했던 군민들은 다시 한번 같은 일이 반복되진 않을지 우려와 걱정을 나타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태완 의령군수는 현재 강제추행과 공직선거법, 무고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오 군수는 직전 군수인 이선우 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별금 300만원이 확정돼 직을 상실하면서 2021년 4월 보궐 선거로 군수에 처음 당선됐다.

그는 그해 6월 17일 의령군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간담회를 하던 중 여의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오 군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군수와 검찰 모두 항소하면서 오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군수가 지난 2월 10일 오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후 법원을 나오며 입장장을 밝이고 있다.

8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당시 오 군수는 사건 발생 후 피해 여인 자가 자신을 고소하자 그해 6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하지만 1심에서 성추행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등 오히려 그의 고소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돼 지난달 28일 무고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또 오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기 홍보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돼 오는 25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군수 대표하는 군수가 각기 다른 혐의로 잇따라 기소되면서 지역 사회는 걱정과 우려를 나타낸다.

불과 2년 전 당시 이선우 군수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낙마했다.

그 직전 군수인 오영호 전 군수 역시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했거나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기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는 등 주민에게는 아픈 기억이 많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무엇보다 오 군수마저 중도 낙마할 경우 다시 군정이 흔들릴 것을 우려한다.

60대 주민 박모씨는 “단체장 임기가 4년이 보장되는 건 그 안에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해서 성과를 내라는 뜻인데 계속 도중에 군수가 바뀌면 무슨 군정이 바로 서겠느냐”며 “장기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추진해도 모자랄 판에 너무 안타깝다.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강제추행이나 무고죄 등 행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별금 100만원 이상을 받아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 한다.

/ 박현재 기자



미술실기대회

한국·인도·일본 청소년 200명, 부산서 5~6일 예술축제

케이아트(K-ART) 국제교류협회는 오는 5일부터 이틀간 부산 해운대구 아르피나에서 ‘2023 국제 청소년 예술축제’를 한다고 2일 밝혔다.

청소년예술축제 미술 실기대회에서

면서 예술축제를 비롯해 부산·울산·경

남 지역 주요 유적지 등을 둘러보며 한

국 전통문화도 배운다.

청소년예술축제 미술 실기대회에서

면서 예술축제를 비롯해 부산·울산·경

남 지역 주요 유적지 등을 둘러보며 한

국 전통문화도 배운다.

청소년예술축제 미술 실기대회에서

면서 예술축제를 비롯해 부산·울산·경

남 지역 주요 유적지 등을 둘러보며 한

국 전통문화도 배운다.

청소년예술축제 미술 실기대회에서

면서 예술축제를 비롯해 부산·울산·경

남 지역 주요 유적지 등을 둘러보며 한

국 전통문화도 배운다.

청소년예술축제 미술 실기대회에서

면서 예술축제를 비롯해 부산·울산·경

남 지역 주요 유적지 등을 둘러보며 한

국 전통문화도 배운다.

청소년예술축제 미술 실기대회에서

면서 예술축제를 비롯해 부산·울산·경

남 지역 주요 유적지 등을 둘러보며 한

국 전통문화도 배운다.

청소년예술축제 미술 실기대회에서

면서 예술축제를 비롯해 부산·울산·경

남 지역 주요 유적지 등을 둘러보며 한

국 전통문화도 배운다.

청소년예술축제 미술 실기대회에서

면서 예술축제를 비롯해 부산·울산·경

남 지역 주요 유적지 등을 둘러보며 한

국 전통문화도 배운다.

청소년예술축제 미술 실기대회에서

면서 예술축제를 비롯해 부산·울산·경

남 지역 주요 유적지 등을 둘러보며 한

국 전통문화도 배운다.

청소년예술축제 미술 실기대회에서

면서 예술축제를 비롯해 부산·울산·경

남 지역 주요 유적지 등을 둘러보며 한

국 전통문화도 배운다.

청소년예술축제 미술 실기대회에서

면서 예술축제를 비롯해 부산·울산·경

남 지역 주요 유적지 등을 둘러보며 한

국 전통문화도 배운다.

청소년예술축제 미술 실기대회에서

면서 예술축제를 비롯해 부산·울산·경

남 지역 주요 유적지 등을 둘러보며 한

국 전통문화도 배운다.

청소년예술축제 미술 실기대회에서

면서 예술축제를 비롯해 부산·울산·경

남 지역 주요 유적지 등을 둘러보며 한

국 전통문화도 배운다.

청소년예술축제 미술 실기대회에서

면서 예술축제를 비롯해 부산·울산·경

남 지역 주요 유적지 등을 둘러보며 한

국 전통문화도 배운다.

청소년예술축제 미술 실기대회에서

면서 예술축제를 비롯해 부산·울산·경

남 지역 주요 유적지 등을 둘러보며 한

국 전통문화도 배운다.

청소년예술축제 미술 실기대회에서

면서 예술축제를 비롯해 부산·울산·경

남 지역 주요 유적지 등을 둘러보며 한

국 전통문화도 배운다.

청소년예술축제 미술 실기대회에서

면서 예술축제를 비롯해 부산·울산·경

남 지역 주요 유적지 등을 둘러보며 한

국 전통문화도 배운다.

청소년예술축제 미술 실기대회에서

면서 예술축제를 비롯해 부산·울산·경

남 지역 주요 유적지 등을 둘러보며 한

국 전통문화도 배운다.

청소년예술축제 미술 실기대회에서

면서 예술축제를 비롯해 부산·울산·경

남 지역 주요 유적지 등을 둘러보며 한

국 전통문화도 배운다.

청소년예술축제 미술 실기대회에서

면서 예술축제를 비롯해 부산·울산·경

남 지역 주요 유적지 등을 둘러보며 한

국 전통문화도 배운다.

청소년예술축제 미술 실기대회에서

면서 예술축제를 비롯해 부산·울산·경

남 지역 주요 유적지 등을 둘러보며 한

국 전통문화도 배운다.

청소년예술축제 미술 실기대회에서

면서 예술축제를 비롯해 부산·울산·경

남 지역 주요 유적지 등을 둘러보며 한

국 전통문화도 배운다.

청소년예술축제 미술 실기대회에서

면서 예술축제를 비롯해 부산·울산·경

남 지역 주요 유적지 등을 둘러보며 한

국 전통문화도 배운다.

청소년예술축제 미술 실기대회에서

면서 예술축제를 비롯해 부산·울산·경

남 지역 주요 유적지 등을 둘러보며 한

국 전통문화도 배운다.

청소년예술축제 미술 실기대회에서

면서 예술축제를 비롯해 부산·울산·경

남 지역 주요 유적지 등을 둘러보며 한

국 전통문화도 배운다.

청소년예술축제 미술 실기대회에서

면서 예술축제를 비롯해 부산·울산·경

남 지역 주요 유적지 등을 둘러보며 한

국 전통문화도 배운다.

청소년예술축제 미술 실기대회에서

면서 예술축제를 비롯해 부산·울산·경

남 지역 주요 유적지 등을 둘러보며 한

국 전통문화도 배운다.

청소년예술축제 미술 실기대회에서

면서 예술축제를 비롯해 부산·울산·경

남 지역 주요 유적지 등을 둘러보며 한

국 전통문화도 배운다.

청소년예술축제 미술 실기대회에서

면서 예술축제를 비롯해 부산·울산·경

남 지역 주요 유적지 등을 둘러보며 한

국 전통문화도 배운다.

청소년예술축제 미술 실기대회에서

면서 예술축제를 비롯해 부산·울산·경

남 지역 주요 유적지 등을 둘러보며 한

국 전통문화도 배운다.

청소년예술축제 미술 실기대회에서</

청주시, 주택 피해 재난지원금 우선 지급…총 405가구



청주시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주택 전파·반파·침수 피해를 본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법으로 규정된 재난지원금에 위로금을 더해 지원금을 주기로 했는데 청주시가 수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전파의 경우 풍수해 보험 미가입자는 주택 규모에 따라 재난지원금 2천만~3천600만원에 위로금 3천100만~6천700만원을 합쳐 5천100만~1억300만원을 받는다.

보험 가입자는 위로금 1천100만~2천600만원을 더해 보험금으로 5천600만~1억2천800만원을 받는다.

반파는 전파 지원금의 50%를 지급한다. 침수 가구는 도배·장판·교체·명목의 재난지원금 300만원과 위로금 300만원을 받는다.

청주는 405건의 주택 피해(보험 가입 14건·미가입 391건)가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오늘부터 주택 피해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고, 위로금 등은 교부되는 대로 순차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임희성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 여야 상대

국고예산 확보 ‘강행군’

양구군, 축제 기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원

지역 식당·관광지 방문 등 조건 채우면 버스 임차료 지급

인센티브 지원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

강원 양구군은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자 축제 기간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여행사가 방문 인원과 지역 내 음식점·관광지 방문 등 조건을 채우면 비용 일부를 지원해 관광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기획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한 여행업체다.

축제장 내 관광안내소에서 확인서 서명 및 단체 사진 촬영, 축제장 내 식사,



방문객 봄비는 청춘양구 편치볼 시래기 사과 축제

농특산물 구매 또는 유료 체험 등 관광 1곳 이상 이용, 유료 관광지 1곳 이상 객 1명당 1만원 이상 사용, 지역 음식점 방문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모두 이행하면 25~35명 규모 여행단에 버스 임차료 50만원, 36~45명 이내는 70만원을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여행사는 방문, 등기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축제 개최 3일 전까지 사전 계획서를 내고 여행 종료 후 20일 안에 인센티브 지원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경은 관광정책팀장은 “축제 기간 인센티브 지원 사업으로 양구군에 더욱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지역경제와 관광 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양구군 축제는 ‘국토정중앙 양구 배꼽축제’(9월 1~3일)와 ‘청춘 양구 편치볼 시래기사과축제’(10월 28~29일)로 자세한 내용은 양구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강우 기자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데 이어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을 잇달아 만나 지역 현안 해결과 2024년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신정훈 전남도당 위원장과 김원이·주철현·김희재·소병철·서동용·이개호·김승남·윤재갑 국회 의원, 박정식 전남도당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도 예산이 민선 7기 7조원대에서 12조원대로 확대, 1인당 지역 총생산 전국 4위, 도민 가구소득 전국 11위 등 도민 삶이 크게 나아지고 있다”며 “미래 100년, 전남의 진정한 균형발전을 실현할 핵심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국회의원들의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서삼석 의원이 예결 위원장이 된 것을 200만 도민과 함께 축

하고, 각종 지역 현안이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든든한 베풀목이 돼주길 바란다”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비 확보와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입법 활동을 통해 도민 삶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이어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민주당 강훈식 국회 예결위 간사 등을 만나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건의했다.

전남도 국립 의과대학 신설에 대해선 “지역 간 의료 격차 완화와 취약지역 의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한목소리로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구축 ▲ 해상풍력 특별법 신속 제정 및 자체 역할 강화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입법화 등 현안을 건의했다.

/ 문형근 기자

임실 브랜드 ‘홍실 고추’ 수매…“영양 풍부·당도 높아”

전북 임실군의 대표적 브랜드인 ‘홍실 고추’ 수매가 시작됐다.

임실고추엔농산물가공판매는 지역 740여 개 농가를 대상으로 한 홍고추 수매를 9월 27일까지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수매 계획량은 1천450t이며, 군은 수매 촉진과 상표 평판 제고를 위해 kg당 200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홍고추 수매는 농가가 꼭지를 제거하면 공장에서 수매해 세척, 건조, 포장, 출하 등의 공정을 대신함으로써 일손 부족,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추 농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군은 설명했다.

특히 임실 홍고추는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을 취득해 안전성이 더욱 강화됐다.

고춧가루를 원하는 소비자는 직영 판매장(임실군 성수면 춘향로 2399), 홈페이지(www.jbgochu.com), 고객센터(☎ 063-643-8949)를 통해 살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해발 250~300m의 중산간 지대인 임실은 낮과



임실 홍고추 수매

밤의 일교차가 크고 일조시간이 188시간이어서 이곳에서 생산된 고추는 영양소가 풍부하고 당도가 높으며 과피가 두꺼워 질 좋은 고춧가루를 많이 생산한다”고 말했다.

/ 임희주 기자

강원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최우수상 수상



강원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도는 고용노동부가 2일 오후 세종 정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3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국비 1억3천500만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2018년 일자리 대상 특별상 수상을 시작으로 6년 연속 상을 받는 기록을 세웠다. 일자리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실적과 우수 사업을 확산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

고자 2012년부터 열리고 있다.

올해 일자리대상에서는 73개 지자체가 상을 받았다. 도내에서는 춘천시, 강릉시, 영월군이 공시제 부문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 특별상을 받았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도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미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투자유치를 강화, 양질의 민간 일자리가 지속 창출될 수 있도록 도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성준 기자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충남서 가축 2만5천마리 폐사

폭포 씨는 더위에 가축들도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폭염으로 2일 오후 2시 기준으로 도내에서 가축 총 2만5천156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폐지가 1천941마리, 산란계·육계·종계·토종닭 등 가금류가 2만3천215마리다.

지역별로 보면 흥성군이 6천243마리로 가장 많았고, 논산 5천416마리, 당진 3천963마리, 부여 3천54마리 등이다.

도 관계자는 “보험사를 거친 뒤 피해 현황이 들어오다 보니 집계까지 시간이 걸린다”며 “수치는 앞으로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위에 약한 젖소·돼지·닭 등은 30도 이상 고온이 지속하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해 면역력과 생산성이 떨어지고, 심각할 경우 폐사한다.

/ 현우진 기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곧 이사 날도 다가오는데… 전세금 잘 돌려 받을 수 있겠지?”

“우리 분양대금은 안전하겠지? 입주 때까지 빌려 놓아야 하는데…”

전세보증금을 지켜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책임지는
【주택분양보증】

대한민국
주 住 고민
HUG가 해결합니다

SAMSUNG

Galaxy Z Fold5 | Z Flip5

사전판매 | 23.8.1 ~ 23.8.7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samsung.com

*이해를 돋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S펜 Fold 에디션은 별도 판매이며, Galaxy Z Fold5, Z Fold4, Z Fold3에만 적용됩니다
*플렉스 모드가 동작하는 각도는 75°-115°이며, 해당 범위를 벗어날 경우 완전히 펼쳐지거나 접힐 수 있습니다

잼버리 반기문 마을에서 만난 대원들…“덥지만, 즐거워요”

기후 위기·빈곤퇴치 등 토론…“좋은 추억 쌓고 돌아가고 싶어”



반기문 마을에서 열린 자율 토론

“덥지만, 즐거워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일인 2일.

행사장 델타구역 끝부분에 있는 ‘반기문’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SDGs) 마을’에서 만난 스카우트 대원 대부분은 “덥지만…”이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했다.

멕시코에서 온 카를로스 가리도(16)군은 “멕시코도 더운데 한국도 너무 덤다”며 “오래 걸었더니 발바닥에 불이 난 것 같다”고 웃었다.

그러면서 “한국에는 처음 왔는데 여러 친구도 만나고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옆에 있던 다른 대원들도 “한국에 와서 즐겁다”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연신 손을 흔들었다.

남아프리카에 있는 가이아나에서 온 네빌 맥도날드(15)군은 “살면서 경험하지 못한 더 위를 여기서 느끼고 있다”며 “반나절만 걸어도 완전히 치친다”고 폭염에 혀를 내둘렀다.

날씨를 주제로 한참 대화를 이어가던 그는 잼버리 생활에 관해 묻자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좋다”며 “이곳에 재밌고 즐거운 게 엄청 많다”고 즐거운 표정으로 답했다.

반기문 마을은 이번 대회 명예 위원장인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의 이름을 본뜬 시설이다.

빈곤 퇴치와 기아 종식, 기후변화 대응 등 17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주제로 자유로운 토론과 전시, 강의 등을 진행하는 곳이다.

세계자연기금(WWF) 등 환경단체들도 이곳에 부스를 마련하고 스카우트 대원들을 상대로 기후 위기 심각성과 멸종 동물 보호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날 문을 연 마을 곳곳에서는 다른 국적을 가진 참가자들이 수시로 모여 세계 평화와 기

후 위기 등을 주제로 각자 생각을 말하며 대화를 꽂아왔다.

‘국민 공통의 언어’인 스포츠를 주제로 가벼운 언쟁을 하는 모습도 눈에 들어왔다.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소속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마을을 지나는 대원에게 다른 대원이 장난스럽게 “호날두”라고 외치자, “노 노, 메시”라는 답이 돌아오는 식이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반기문 마을이 있는 델타구역 정비를 마치면 더 많은 대원이 이곳을 찾아 국적을 초월한 소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조직위 관계자는 “개영식이 열리는 밤까지 델타구역 정비는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의 만남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송유영 기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일인 2일 전북 부안군 하서면 아영장 인근에 마련된 ‘반기문’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 마을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이 취재진을 보고 활짝 웃고 있다.



2023 원주 댄싱카니발 9월 22~24일 개최…6일까지 참가팀 모집

2023 원주 댄싱카니발이 오는 9월 22부터 사흘간 열릴 예정인 가운데 참가자 모집에 나섰다.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은 올해 댄싱카니발 경연 참가자를 오는 6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방문 접수는 오는 4일 오후 6시까지.

재단은 참가팀 모집이 마무리되는 대로 경연·심사 방식, 순서표 등을 확정해 본격 공연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모집 장르는 무용, 스트릿, 스포츠댄스 등 다양한 댄스 분야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ADVERTISEMENT

올해 댄싱카니발은 기존의 퍼레이드형 공연이 아닌 무대형 퍼포먼스를 통해 전문성을 한층 높인다.

참가팀 모집 이후 전문가가 심사하는 예선 영상심사를 통해 선정된 12팀이 본선에 진출하는 방식이다.

본선팀은 댄싱카니발 전야제가 열리는 오는 9월 22일 댄싱 공연장 특설무대에서 5~7분 내외의 퍼포먼스 무대를 펼쳐 경합한다.

수상 팀에는 대상 500만원을 비롯해 총 2천100만원의 상금을 준다. 최종 상위 8팀은 9월 23일 개막식과 24일 폐막식 무대에서 각 4팀씩 앙코르 공연을 펼친다.

댄싱카니발 개·폐막식에는 초청공연팀도 화려한 무대를 선사한다.

재단 관계자는 “올해 댄싱카니발은 기존의 퍼레이드형에서 무대형 퍼포먼스로 새로운 시도를 통해 높은 웰리티를 추구하는 축제로 방향을 잡았다”며 “전문성을 한층 강화해 더 멋진 무대를 선보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 조유진 기자

하나로 연결되는 행복금융 프로젝트

금8비용 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신용대출 기한연장 손님으로서 전월말 기준 KCB신용평점 629점 이상 이하 등 기계대출 차주
지원내용: 적용금리 6%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이자상당액 최대 3% 범위 내 대출원금 매월 자동상환

중도상환예약금 면제 프로그램

지원대상: 전월말 기준 KCB신용평점 767점 이하인 기계대출 이용 손님
지원내용: 중도상환예약금 전액 면제

하나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 국토부 전세자금 피해 인정 대상자로서 주택담보대출(구입용) 또는 전세자금대출 신규 신청 손님
지원내용: 신규취급시 최초 1년간 이자, 중도상환예약금, 인자세/체관할인료 면제

디지녀기구 금리우대 프로그램

지원대상: 만19세 미만 22세 이상 양육 가구로서 주택담보대출 또는 전세자금대출 신규, 기한연장 신청 손님
지원내용: 2차녀기구 연 0.2%p(단, 목적물 주택면적 85m² 이하에 한함) / 3차녀기상 가구 연 0.4%p 우대

이자 캐쉬백 의무 프로그램

지원대상: 옛날론15 보유 중이거나 신규 신청하는 손님
지원내용: 매월 대출잔액의 1% 상당(일반산) 금액 ‘하나마니’ 지급을 통한 캐쉬백

※ 프로그램별 상세자문 요건이 상이하여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더 할수록 더+해지는 더 나은 내일

금융 사각지대에 관심을 더하고
편리한 금융이 되고자 혁신을 더하고
고객 일상이 행복하도록 안심을 더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더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한화손해보험의 +는 계속됩니다**

|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화상구 구 서비스 | 생명다양성·환경 보호를 위한 임직원 활동 참여
| 모두의 안전을 위한 위기탈출 안전교육 활동 | 동반성장을 위한 기업지배구조현장 공표

한화손해보험



우리금융그룹

World EXPO 2030
BUSAN, KOREA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우리 소상공인, 더 오래 걸을 힘****우리 청년, 더 어깨 펼 힘****우리 중소기업, 더 날개 돋칠 힘****우리가 힘을 모을수록****우리의 힘은 강해질 테니까**

우리 모두에 우리의 힘을

|우리은행 대국민 상생금융 프로젝트|

우리은행

“이강인 왔다!”…PSG, 팬 환호 받으며 부산 도착

PSG, 3일 오후 5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전북과 대결

프로축구 전북 현대와 ‘쿠팡플레이 시리즈 3차전’을 앞둔 ‘프랑스 명가’ 파리 생제르맹(PSG)이 300여명 팬의 환호를 받으며 부산에 도착했다.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이끄는 PSG 선수단은 2일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프리시즌 투어에 나선 PSG는 지난달 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르아브르 AC와 경기를 시작으로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일본에서 알나스르(사우디아라비아), 세레소 오사카(일본), 인터밀란(이탈리아) 등과 차례로 맞붙었다.

PSG는 3일 오후 5시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K리그1 강호 전북 현대와 대결을 마지막으로 프리시즌 일정을 끝내고 한국시간 13일 오전 4시 FC로리昂과 2023-2024 프랑스 리그1 1라운드를 치른다.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PSG) 이강인이 2일 오후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고 있다. PSG는 3일 오후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전북현대와 경기를 치른다.

정규리그 개막을 앞두고 마지막 프리시즌 매치를 부산에서 치르는 PSG 선수들을 보기 위해 김해국제공항에는 도착 시간을 한참 앞두고 이강인과 네이마르 등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든 팬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응원 문구를 적은 손팻말을 준비한 팬들도 많았다.

PSG 선수단을 태운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입국장에는 300여명이 넘는 팬들이 저마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높이 들고 선수

들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마침내 입국장 문이 열리고 엔리케 감독을 선두로 선수들이 나오자 입국장은 환호성으로 가득했다.

지난 6월 축구대표팀의 일원으로 부산을 찾았던 이강인은 PSG 유니폼을 입고 다시 한번 부산을 찾았고, 팬들은 이강인의 이름을 연호하며 사인을 받으려고 애를 썼다.

PSG 트레이닝복과 모자를 쓴 이강인은 팬들이 내민 유니폼에 사인을 해준 뒤 곧 바로 버스에 올랐다.

엔리케 감독을 비롯한 다른 선수들도 팬들이 준비한 유니폼에 직접 서명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PSG 선수들은 이날 저녁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픈 트레이닝을 치를 예정이다.

/ 최준용 기자



지도하는 박인비

‘골프 여제’ 박인비, 슈퍼 루키 방신실에게 “너무 잘하던데요”

올해 4월 출산한 ‘골프 여제’ 박인비가

1년에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인비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개막을 하루

앞둔 2일 제주시 블랙스톤 제주에서 열린

‘꿈나무 러온’ 행사에 참석했다.

박인비와 세계랭킹 2위 고진영 등 프로

7명은 골프 꿈나무들이 스윙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세심하게 지도했다.

박인비도 “스윙할 때 어깨가 뜬다. 오른

쪽 어깨를 낮춰줘”라고 조언하는 등 어린

후배들을 보살폈다.

박인비에게 지도받은 김하은(11) 양은

“(스윙할 때) 피니시에서 (어깨가) 아팠는

데 잘 배운 것 같다”며 “오늘 직접 보니까

완전 좋았다”고 웃어 보였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KLPGA 투어 ‘슈퍼 루키’ 방신실이 박인비에게 다가가 따로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박인비는 반기워하며 “TV에서 많이 봤어요. 너무 잘하던데요”라고 덕담을 건넸다.

박인비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메이저대회 7승을 포함해 21승을

쌓았고,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내 4대 메이저대회와 더불어 ‘골든슬램’을 달성한 선수다. 가장 최근 참가한 대회는 지난해 8월 열린 AIG 여자 오픈이다. 아직 구체적인 필드 복귀 계획을 밝히진 않았다.

/ 신현미 기자

‘세계 2위’ 독일전 앞둔 벨호…핵심 수비수 임선주, 훈련엔 복귀

독일전 출전 여부는 미정…이영주 “확률 작지만 없는 게 아냐”



왼쪽 종아리 부상으로 모로코전에 결정했던 한국 여자 축구대표팀의 임선주가 독일과의 조별리그 3차전을 하루 앞둔 2일 오후(한국시간) 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의 스페너 파크에서 훈련하고 있다

모로코와 경기 직전 갑작스러운 종아리 통증으로 이탈한 여자 축구대표팀의 ‘핵심 수비수’ 임선주(인천 현대제철)가 훈련장으로 돌아왔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일 오후 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의 스페너

파크에서 독일전을 앞두고 마지막 훈련을 진행했다.

한국과 독일은 한국시간으로 3일 오후 7시 이 경기장에서 2023 국제축구연맹(FIFA)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 조별리그 H조 최종전을 치른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일

콜롬비아, 모로코에 내리 진 한국은 뭉시 어려운 과제를 받았다. 독일전 5골 차승리가 없다면 즉시 탈락한다.

여기에 모로코가 콜롬비아에 져야 우리가 조 2위로 16강에 들 수 있다. 이런 상황이 하나라도 겹치지 않으면 이번 훈련이 월드컵에서 ‘마지막 훈련’이 된다.

발목 인대 파열로 먼저 귀국한 골키퍼 류지수(서울시청)를 뺀 22명 선수는 세워둔 훈련 장비가 넘어지는 강풍 속에서 1시간 가량 구슬땀을 흘렸다.

임선주도 그라운드에 나타나 해맑은 얼굴로 훈련을 정상 소화했다. 핵심 수비자원인 임선주는 지난달 30일 열린 모로코와 H조 2차전에 앞서 위망업 도중 종아리 통증을 느껴 그라운드를 떠났다.

임선주가 빠진 대표팀 수비진은 경기 시작 6분 만에 이브리삼 즈라이디에게 선제 결승 골을 허용했다.

경기 후로도 계속되는 통증에 훨체어

를 타고 생활한 임선주는 정밀 검진 결과 왼쪽 종아리 근육 파열 진단을 받았다. 아직 독일전 출전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벨 감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선주의 건강 상태를 봐야 한다”며 “오늘 (훈련에서) 한번 테스트하겠다. 내일 경기에 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밝혔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벨 감독은 훈련장에서는 잔뜩 예민해진 모습을 보였다.

초반 15분만 훈련을 공개한 벨 감독은 악속한 시간이 되자 직접 취재진에게 다가가 “미디어”라고 외치며 다그치기도 했다. 독일은 FIFA 랭킹 2위의 강호지만 벨 감독은 포함한 선수단 전체가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벨 감독과 함께 기자회견장을 찾은 이영주(마드리드 CFF)는 “가능성의 문”이 아직 닫힌 게 아니다. 열려 있는 이상 그 좁은 문을 뚫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16강에 진출할 확률이 작지만, 없는 건 아니라는 희망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된다”며 “출전하게 된다면 죽도록 뛰겠다”고 힘줘 말했다. / 임형준 기자

신진서·박정환·변상일 바둑 태극전사들,

세계기전 몽백합배 우승 도전

한국 바둑을 대표하는 프로기사들이 메이저 세계기전 몽백합배 우승 사냥에 나선다. 한국은 3일 중국 허난성 정저우에서 열리는 제5회 MLILY 몽백합배 세계바둑오픈전 64강전에 14명의 정예 기사가 출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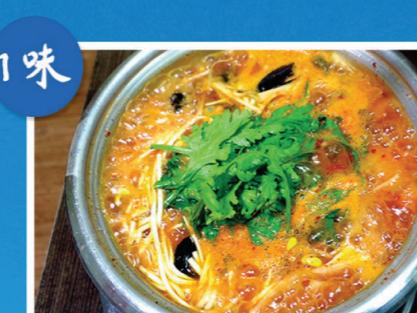
한국기원은 랭킹 톱3인 신진서·박정환·변상일 9단을 우선 선발한 데 이어 국내 선발전을 통해 신민준·김명훈·안성준·원성진·홍성지·백홍석·최정 9단, 박건호 7단, 원제훈 3단을 뽑았다.

아마추어 선발전을 통과한 박승현·

최환영도 64강전에 참가한다. 주최국 중국은 전기 대회 우승자 미워팅 9단과 준우승자 세커 9단, 와일드 카드 구쯔하오·구리 9단 등 최다인 32명이 출전한다.

일본은 이치리키 료·시바노 도라마루·이야마 유타 9단 등 11명, 대만은 쉬하오슝 9단과 천치루이·라이쥔푸 8단 등 3명이 출사표를 올렸다. 북미지역에서는 케빈 양·알렉산더 치 초단, 유럽에서는 스타니슬라프 초단(풀란드) 등이 대표로 나선다. / 박소희 기자

포항 10년 포항의 맛



모리국수



해신탕



영일대 조개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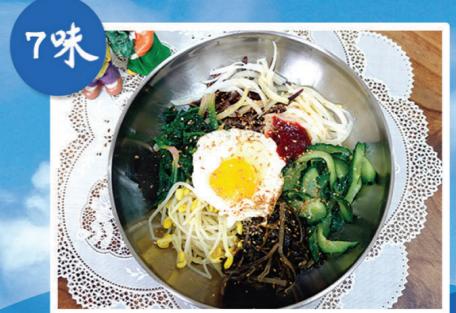
등푸른파회



와메기



구룡포대게



포항초비빔밥



소머리곰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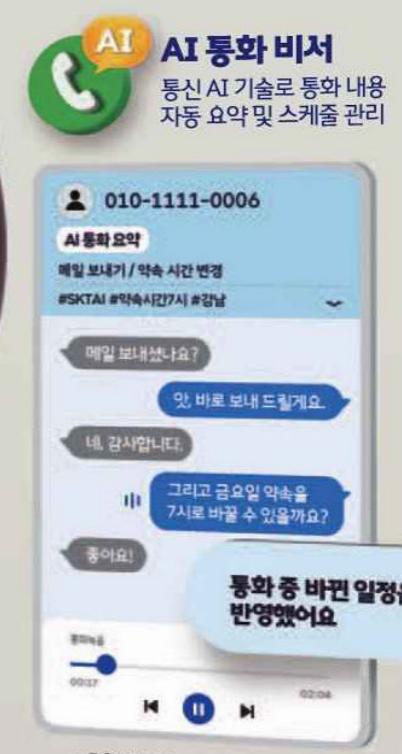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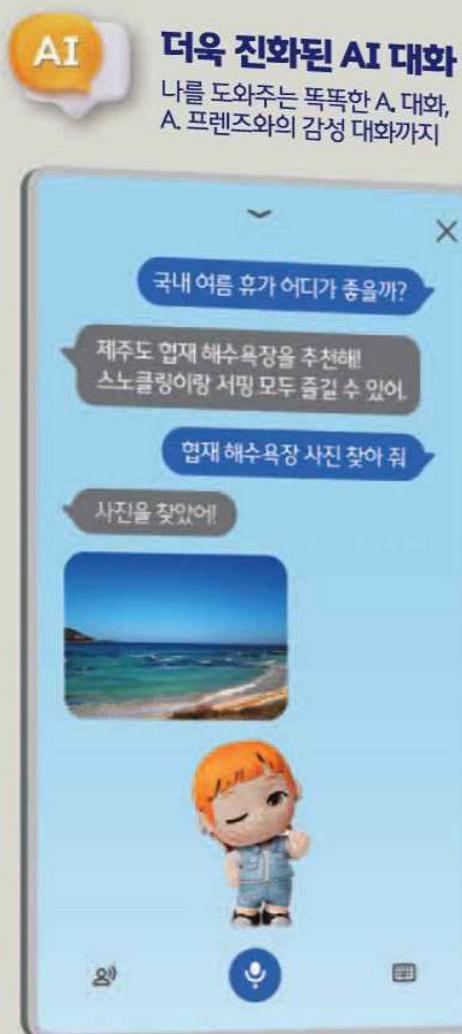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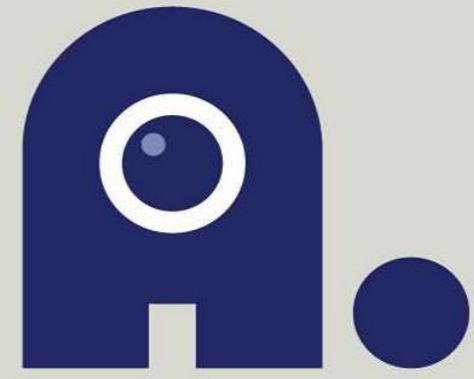
물회



아구탕

WAVE EXPO 2030
WORLD EXPO 2030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WAVE

내 손안의 AI 친구 A.



SKT의 AI는 어디에나 있다
AI to Everywhere

SK telecom